OCI홀딩스, 비중국 폴리실리콘 판매 확대… 실적개선 속도

내년 초 美 신규 고객사 공급
증설물량 두고 추가계약 논의도
최저수입가격제도 수혜 기대감

OCI홀딩스가 미국 시장에서 비중국 폴리실리콘 공급을 늘리며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생산 물량의 판매처를 2029년까지 확보한 데다 내년 초부터 미국 신규 고객사향 출하가 시작되고 다음 달 미국의 최저수입가격(MIP) 제도까지 시행되면서 성장세는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모비스 오하이오공장.

25일 업계에 따르면 OCI홀딩스는 내년 1분기부터 우주용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미국 고객사에 폴리실리콘·웨이퍼 공급을 시작한다. 올해 맺은 장기공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웨이퍼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테라서스가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베트남 자회사 네오실리콘테크놀로지스가 가공해 납품한다. 업계는 이에 따라 OCI테라서스의 내년 폴리실리콘 판매량이 3만톤에 근접해 올해보다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OCI홀딩스는 OCI테라서스의 연간 생산능력 3만5000톤에 대해 2029년까지 판매처를 모두 확보한 상태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지난 7월 실적 발표에서 "2028~2029년까지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과 베트남 웨이퍼는 완전 솔드아웃(주문 완료) 상태"라고 말했다. 수요가 공급을 웃돌면서 증설에도 속도가 붙었다. OCI홀딩스는 1조4000억원을 들여 생산능력을 2029년 7만톤으로 두 배 늘리고 증설 물량을 두고도 미국 고객사와 추가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판매 확대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OCI홀딩스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680억원으로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고, OCI테라서스는 판매량이 전분기보다 45% 늘어 20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올해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개선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OCI홀딩스의 4분기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79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0.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MIP는 가격 측면에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수입 폴리실리콘에 kg당 21달러의 하한선이 적용되면 kg당 5달러대인 중국산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비중국산 가격도 kg당 18달러 안팎으로 하한선을 밑도는 만큼, 미국에 들어오는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의 도입 원가 역시 21달러 이상으로 높아진다. 중국 밖에서 폴리실리콘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가 OCI홀딩스와 독일 바커, 미국 헴록 정도에 불과해 미국 고객사들의 비중국산 수요도 OCI홀딩스로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내 모듈 재고가 60~70GW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MIP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는 재고가 소진되는 내년 중반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유진 iM증권 연구원은 "MIP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은 내년 2분기 말 또는 3분기 초반"이라며 "OCI홀딩스는 내년 초부터 물량 증가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당장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비중국 업체가 OCI홀딩스뿐이어서 중장기로도 물량 증가의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생산라인… 글로벌 공급거점 역할 '톡톡'

르포
한국GM 보령공장

연간 50만대 이상 자동변속기 생산
비자레알 사장 "시장 경쟁력 기여"

지난 23일 찾은 충남 보령 한국GM 보령공장. 논과 밭이 펼쳐진 한적한 풍경 사이로 들어선 공장 안에서는 기계음과 함께 변속기 생산라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GM 보령공장. (왼쪽부터)가공 공정 밸브 바디 가공 장비·알루미늄 고압 사출 장비. /한국GM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이곳은 600명 이상의 고용을 책임지는 보령 지역 최대 민간 사업장이자 한국GM의 글로벌 생산거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부품 공급기지다. 이곳에서 생산된 자동변속기는 국내 완성차 생산라인은 물론 남미와 중앙아시아까지 향한다. 지역 일자리와 한국GM의 생산 경쟁력, 글로벌 공급망을 동시에 지탱하는 산업 현장인 셈이다.

메인샵에는 가공라인과 조립라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보령공장은 소재 생산부터 가공·조립까지 한 사업장에서 수행한다. 알루미늄 부품과 기어를 자체 가공하고 열처리 라인도 갖췄다. 변속기 정밀 가공 공정의 자동화율은 81%다.

케이스·하우징 가공라인은 작업자가 제품을 투입하면 가공과 누설검사, 세척을 거쳐 자동 창고에 보관한다. 이후 조립 순서에 맞춰 부품을 공급해 보관 공간과 물류 인력을 줄인다.

조립라인은 청정도를 관리하는 클린룸 형태다. 서브라인에서 조립한 제품은 머리 위 컨베이어를 통해 메인라인에 공급된다. 주요 품질 데이터는 RF 태그 시스템으로 서버에 저장하며 완성된 변속기는 모두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출고된다.

공정 연계 효과는 핵심 부품인 기어에서 드러난다. 열처리 과정에서 변형이 생길 수 있는데 보령공장은 전후 공정을 내부에서 수행해 변형을 확인하고 후속 가공에 반영한다.

보령공장은 1996년 7월 설립돼 이듬해 4단 자동변속기 양산을 시작했다. 2004년 GM 글로벌 사업장에 편입됐고 2007년부터 6단 자동변속기를 생산했다. 지난해 6월 6단 자동변속기 누적 생산 700만 대를 달성했으며 내년 상반기 800만 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생산능력은 50만 대 이상이다. 협력사는 218곳이며 지난해 생산·부품 조달·물류서비스 관련 연간 구매액은 약 3390억원이다.

이날 보령공장을 방문한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의 경쟁력이 직원들, 사람들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보령공장은 이곳에서 생산하는 고품질 변속기를 통해 한국GM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현대모비스, 글로벌 수주 이어져… 고부가 사업구조 전환 가속

유럽·북미 등 완성차 업체 부품 공급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핵심부품 수주를 이어가며 해외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동화와 전장화 전환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현지 생산거점을 앞세워 유럽과 북미 시장 공략에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4분기 들어 제동·조향시스템과 섀시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품 수주가 이어지면서 올해 해외수주 목표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모비스 오하이오공장.

현대모비스는 최근 유럽 완성차 업체로부터 전자식 회생제동 브레이크시스템(iMEB)을, 북미 고객사로부터 전자식 조향시스템(EPS)을 각각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두 품목을 합쳐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두 제품 모두 탑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부품으로, 현대모비스는 현지 경쟁업체를 제치고 공급사로 선정됐다. 향후 3~4년 뒤부터 최대 8년간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픽업트럭 등 다양한 차종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생산체계도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유럽은 슬로바키아 공장을 활용하고 북미는 고객사 인근 생산거점을 통해 양산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유럽연합(EU)이 현지 생산 부품 사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스페인, 헝가리, 튀르키예 등에 구축한 생산 네트워크도 수주 확대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북미 완성차 업체로부터 향후 7년간 공급하는 대규모 섀시모듈 수주도 확보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모듈과 핵심부품을 합쳐 145억 달러(약 20조원)의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초 목표인 118억달러를 약 23% 웃도는 규모다. 차세대 전자기계식제동시스템(EMB)과 스티어 바이 와이어(SBW) 등 미래 핵심부품 수주 논의도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안정적인 양산 능력과 품질관리, 현지 고객 대응력을 앞세워 글로벌 고객사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부품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디스플레이 에이엠에스오스람 투자

마이크로 LED 상용화 박차

삼성디스플레이가 글로벌 광반도체 기업 에이엠에스오스람(ams OSRAM)의 최대주주에 올라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에 나선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서 축적한 패널 기술에 초미세 발광소자 제조 역량을 더해 마이크로 LED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5일 에이엠에스오스람의 지분 9.1%를 확보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는 약 2억1000만유로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에이엠에스오스람이 신규 발행하는 주식 998만4439주를 취득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예정이다. 지분 취득은 관련 기관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내년 초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사는 지분 투자와 별도로 차세대 마이크로 LED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에이엠에스오스람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초미세 LED의 발광 효율과 원가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소자의 성능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상용화에 필요한 제조 공정 및 생산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개발해 온 마이크로 LED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알도 캄퍼 에이엠에스오스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투자는 양사의 상호보완적인 기술과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투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의 진화와 새로운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삼성물산 상사부문 이재혁 부사장 선임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부사장 1명, 상무 3명 등 총 4명을 승진시키는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이재혁 신임 부사장(사진)과 노영식·이진수·조팽연 신임 상무가 발탁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성과주의 기조 속에서 중장기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문 역량을 보유한 우수 리더들을 적극 발탁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정기 임원인사에 이어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